

이광수의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 비교연구

장 춘 매*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전통의 계승과 갱신의 제양상 |
| II. <무정>과 <제소인연>의 비교분석 | IV. 결론 |

국문초록

20세기 초에 유가사상에 젖어 있었던 중한 양국은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근대화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한 양국 근대과도기의 연애와 혼인에 관한 인식을 밝히기 위해 본고는 한국 작가 이광수의 <무정>과 중국 작가 장한수의 <제소인연>을 비교했다. 두 작품은 모두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유연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본고는 이 두 작품을 주제, 인물, 서사법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작가 이광수와 장한수가 자유연애에 대해 주장하는 관점도 규명했다. 그리고 주제와 문체의 차원에서 두 작품이 전통문학을

* 청도이공대 외국어학원

계승하면서 개혁해 나아가는 측면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이광수, 장한수, <무정>, <제소인연>, 비교, 자유연애, 서사법

I. 서론

중한 수교 이후 중한 양국의 문학 작품을 비교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한 양국 문학이 역사적으로 인접국가로서 왕성하게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근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구충격과 일본의 영향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중한 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광수의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광수의 <무정>은 한국 근대소설을 개창한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장한수의 <제소인연>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근대초기에 당대인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자유 연애를 주제로 선택하였고, 고전소설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소설의 서사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한 양국의 근대 초기 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난 후 근대문학에 있어 두 가지 규범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5·4운동이 주장하는 서구문학을 모방하는 신문학, 후에 중국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문학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전통적 근대문학이다. 5·4운동 당시 많은 작가들은 신문학 작품이 고아하고 이성적인 문학이라고 평가하면서 전통적 근대문학 작품들을 모두 오락성만을 추구하는 저속한 문학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당대의 분위기 때문에 근대초기에 중국 張恨水가 전통문학의 창작 방법을 사용하여 창작한 소설들도 저속 문학이라고 비판당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문학연구자들에 의해 장한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여 중국 전통 章回體소설을 개량시킨 위대한 작가로 불리고 있다. 특히 장한수가 쓴 <제소인연>은 연애소설과 사회소설을 결합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작품을 평가되어 ‘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에 뽑혀 있고 중국문학사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이광수의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을 비교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에서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도중에서 양국의 전통문학을 계승과 갱신의 변별점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 작가 이광수 및 그의 작품 <무정>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장한수 및 그의 작품 <제소인연>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작가에 대한 비교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본고에서는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을 주제, 인물, 서사법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근대문학 초기에 전통문학의 계승과 갱신 과정에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I. <무정>과 <제소인연>의 비교분석

1. 작품 개요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14일까지 《매일신보》에 총 126회 연재한 이광수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이다. 주인공 박영채가 어릴 때 아버지 박진사로 인해 이형식과 가약을 맺었다. 후에 아버지가 투옥돼서 영채는 이형식과 헤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영채는 기녀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어 자결을 했다. 열녀전을 배운 영채는 계속 정절을 지키면서 이형식이 자신을 구한 걸 기다렸다. 그동

안 일본 유학갔다는 이형식은 재산이 많은 교회 김장로의 딸 김선형에게 영어교사로 초빙되었다. 김장로는 곧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는데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이형식을 사위를 두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선형에게 첫날 영어 수업했고 집에 들어오니 영채와 만났다. 그러니까 이형식은 영채와 결혼할까 선형과 결혼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영채는 겁탈당하여 자살하러 평양으로 떠났다. 이형식은 영채를 찾으러 평양에 따라갔지만 행적을 발견하지 않아서 되돌아오니 선형과 약혼했다. 영채는 병욱에 의해 구원되어 일본 유학가는 기차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형식과 김선형을 만났다. 길에서 삼랑진의 수재민을 보고 네 사람이 개인감정보다 먼저 민족을 구제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깨달았다. 결국 유학간 네 사람이 모두 성공한 인생 길을 밟았다.

<제소인연>은 1930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해 《新闻报》의 중간 《快活林》에 연재되었다. 대학교에 다니려고 북경에 온 樊家樹가 협객 關壽峰과 그의 딸 關秀姑, 및 가녀 沈鳳喜를 선후 알았다. 관수봉의 딸 관수고는 번가수를 사랑했지만 번가수의 마음은 심봉희에게 첫눈에 끌려갔다. 그런데 번가수의 외사촌형과 형수는 번가수가 재정부장의 딸 何麗娜와 가연을 맺는 데 힘썼다. 그러니까 번가수는 심봉희, 관수고, 하려나 세 사람과의 다각 연애에 빠지게 되었다. 남방에 있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병문안 갔다온 후 심봉희는 군벌 劉德柱의 유혹에 넘지 못해 끝내 유덕의 부인이 되었다. 번가수가 심봉희와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관수고는 일부터 유덕의 하인이 되었다. 번가수와 심봉희는 다시 만났지만 심봉희는 벌써 마음을 바꿔 두 사람 감정의 금이 다시 아물 수 없었다. 유덕주는 두 사람이 남몰래 만나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여 심봉희를 때렸자 심봉희는 너무 놀라 미치게 되었다. 미모한 관수고를 점유하고 싶은 유덕주는 결혼 당일에 관수고에게 죽였다. 결국은 관수봉과 딸 관수고의 도움에 의해 번가수는 하려나와 결혼하게 되었다.¹⁾

1) 陈子平, 「人生长恨水长东」『张恨水精选集』, 北京燕山出版社, 2009. p.5.

2. 주제 비교

<무정>과 <제소인연>은 모두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사이의 연애 이야기를 통해서 한중 양국 근대사회 초기에 유행한 자유연애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연애에서 결혼까지의 과정을 보면 근대 과도기에 한중 양국 사람들은 아직 서구적인 자유연애를 완전히 자연스러운 남녀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정>의 남주인공 이형식은 신교육을 받아 순결한 부자집 딸 선형을 사랑하게 되지만 전통사상의 구속으로 인해 은사의 딸 영채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편 선형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구적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았지만 아직 한국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사상이 머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줄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형식과 약혼했다. 선형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형식과 결혼을 하고 남편인 이형식을 따라 아내로서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 또 자신이 서구문명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 김장로 역시 한국 전통혼인의 절차를 섞어 딸의 약혼식을 치렀다. 비록 이형식과 자신의 딸 김선형에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영어수업을 받게 했지만 수업한지 아직 며칠이 안 될 때, 즉 이형식과 선형이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매자 역할을 할 목사를 보내어 이형식에게 약혼 의사를 전해 주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이형식에게 선형은 거절할 수 없는 배우자였다. 아름답고 순결한 선형은 부자집 딸일 뿐만 아니라 약혼하자마자 둘이 함께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형식으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기에 당연히 그녀와의 약혼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런 혼인은 완전히 자유연애 혼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소인연>에서 번가수는 신교육을 받은 인물로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 여자주인공 중에서 관수고는

아름답고 가수를 사랑하지만 무술을 하는 협녀(俠女)이고 보수적인 여성여서 번가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려나는 부자집 딸이고 심봉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 ‘방탕한’ 옷차림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번가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반면 심봉희는 비록 가녀(歌女)였지만 번가수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 신분의 차이를 개의치 않고 자기의 돈으로 심봉희에게 가녀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고 학교에 다니게 했다. 심지어 심봉희의 가족까지 편하게 살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심봉희는 젊고 잘 생긴 번가수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번가수와 심봉희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 무렵에 번가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받아 할 수 없이 심봉희와 헤어져 고향으로 갔다. 마침 이때 새부인을 맞이하려는 군벌 유덕주 군장이 심봉희 삼촌을 통해서 심봉희를 알게 되자 심봉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유장군은 금전으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 위협하여 결국 심봉희는 유덕주의 부인이 되고 만다.

고향에서 돌아온 번가수는 이 사실을 알고 심봉희와 만나서 같이 도망가자고 하였지만 심봉희는 거절하고 4000원 짜리 수표를 건네주면서 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감정을 해결하고자 했다. 수표를 받은 번가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표를 찢어버리고 떠나버렸다. 번가수는 자기 마음대로 심봉희를 고르고 마음껏 잘해 주면서 자유연애 혼인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있다. 첫째, 유장군의 유혹과 위협이다. 유장군의 유혹과 위협이 없었다면 심봉희는 가수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둘째, 심봉희의 의지가 박약해서 금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심봉희가 유장군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누운 채 유장군에게서 받은 300원을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 만 원쯤을 달라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줄 거야. 올해 난 17살이니 그 사람과 십 년 같이 살아도 늙지 않아. 십 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서 돈을 얼마나 받을 건가! 평생 財神이 되겠

네.”²⁾이러고 보면 심봉희는 유장군의 위협을 받기 전에 벌써 유장군의 금전에 유혹되었다. 셋째, 심봉희와 번가수의 사랑은 처음부터 금전의 바탕에서 세웠으니 순수한 자유연애라고 할 수 없다. 북경 천교에서 심봉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번가수는 몸에 잔돈이 없고 돈 안 주면 창피해서 할 수 없이 1원 동전을 내어주었다. 그러자 심봉희의 어머니와 삼촌은 번가수가 부자집에 공자인 것을 확신하고 심봉희와 번가수를 계속 만나게 했다. 과연 번가수는 그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았다. 번가수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돈 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녀인 심봉희에게는 번가수가 자기와 가족을 가난에서 구제해 주는 은인일 뿐이고 애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당시에는 자유연애가 낮은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장군은 자신의 권력으로 번가수의 자유연애에 방해했고, 심봉희는 가녀로서 신분상승과 부유생활을 갈망하였기에 번가수의 사랑을 버린다. 번가수는 심봉희와 사랑을 금전의 바탕에서 세웠으니 평등이라는 자유연애의 선결조건을 잃게 되었다. 결국은 번가수의 자유연애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정>은 자유연애와 혼인을 주제로 삼는 것 외에 민족계몽의 주제도 담고 있었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삼랑진 수재 현장에서 만난 이형식, 김선형, 박영채, 김병욱은 수재민을 보고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버리고 먼저 유학을 갔다 와서 고난 중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제해야 하겠다는 계몽의식에 사로잡힌다. <제소인연>의 작가 장한수 역시 기자의 시각으로 당시의 군벌 통치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그림으로써 당대의 암흑사회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2) 我若是和他开口，要个一万八千，决计不成问题，他是照办的。我今年十七岁，跟他十年也不算老，十年之内，我能够弄他多少钱！我一辈子都是财神了。张恨水，「啼笑因缘」『张恨水精选集』北京燕山出版社 2009, p.105.

3. 인물 비교

<무정>과 <제소인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근대 과도기를 살아 가는 지식인들로 그 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담고 있어 전통 사상과 근대 사상을 겸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정>과 <제소인연>에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 이형식과 번가수, 박영채와 심봉희, 김선형과 하려나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소인연>에는 번가수와 관수고의 사랑은 단지 관수고의 짝사랑에 지나지 않아 관수고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1) 이형식과 번가수의 비교

이형식과 번가수는 모두 전통사상을 버리지 못한 남주인공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여성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이형식은 박진사의 은혜를 받아 계속 살아나면서 신문명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은사의 딸과 가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영채와 헤어진 후 칠 년만에 다시 만날 때 영채가 기생이 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형식은 천 원을 모아서 영채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형식이 천 원을 모으기 전에 이미 영채가 겁탈당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었던 여자를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강한 욕망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번가수 역시 가녀 심봉희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돈으로 심봉희가 가녀의 신세에서 벗어나 학생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이형식과 번가수는 모두 당시 새로이 밀려드는 신사상을 받아들인 인물들이다. 이형식은 박진사에게 신문명을 배우다가 일본에 유학 가서 서구문명과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신문명으로 한민족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형식은 자신의 인륜지대사인 결혼문제도 서구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형과 약혼한 후 자신이 선형을 사랑한 걸 확실하지만 선형이

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선형에게 여러 번 “저를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어쩔사리 끝에 “네!”라는 대답을 얻기도 한다. 번가수는 유장군의 부인이 된 심봉희와 다시 만날 때 심봉희에게서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어찌려고? 헤어지자고? 네 마음은 내가 다 안다. 유씨에게 뺏앗겼으니 부끄러워해서 나랑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실은 그게 상관없어. … 요즈음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비록 몸이 모욕을 당했더라도 서로의 사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형식에 아니라 정신에 세운 것이고 정신이 똑같다면…”³⁾ 이라는 말한다. 그래서 자유연애의 사상을 신봉하는 번가수는 심지어 몸이 이미 겁탈을 당했어도 여전히 심봉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형식과 번가수는 모두 동양적인 신여성을 택했다. 두 작품의 결말에 남주인공이 모두 동양의 전통적인 미를 갖춘 신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선형은 순결하고 착하고 서구사상을 배우고 있는 신여성이고, 하려나는 사랑하는 번가수를 위하여 전통적인 소박함을 되찾은 신여성이다. 이는 근대과도기의 신사상을 모르는 영채와 봉희 등 구 여성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암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형식과 번가수는 모두 아버지를 여의어서 전통사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무정>에서 이광수는 병국과 신우선의 불행적인 혼인을 통해서 전통적인 혼인의 폐단과 가부장제가 자유연애 혼인에 미친 좋지 않은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조실부모한 이형식은 이런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랑하는 선형과 약혼하고 유학을

3) 怎么样?你就从此和我分手了吗?我知道,你的意思说,以为让姓刘的把你抢去了,这是一件可耻的事情,不好意思再嫁我,其实是不要紧的. …可是现在的年头儿,不是那样说,只要丈夫真爱他妻子,妻子真爱她丈夫,身体上受了一点侮辱,却与彼此的爱情,一点没有关系.因为我们的爱情,都是在精神上,不是在形式上,只要精神上是一样的…. 张恨水, 앞의 책, p.151.

가게 되어 신우선의 부러움을 받았다. <제소인연>에서 번가수는 봉희를 마음대로 도와주고 가녀에서 벗어나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자유롭게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심지어 삼촌의 뜻도 거절했다. 번가수의 삼촌은 재정부장인 하려나의 아버지에 의해 승진하고 싶어 번가수와 하려나가 결혼하기 바래 힘을 많이 썼지만 번가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형식과 번가수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형식은 여자를 구출할 욕망이 있었지만 출세할 계기인 과거시험이 취소돼서 영채를 구출할 능력이 없다. 이는 이형식과 영채를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간접적인 이유이다. 반면 번가수는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집안형편이 좋아서 심봉희를 가녀 신분으로부터 구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후에 심봉희에게 배신을 당해서 역시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형식은 여자의 정조를 중요시하지만 번가수는 그렇지 않다. 영채가 겁탈당한 장면을 본 그날 밤에 형식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형식의 앞에는 선형과 영채가 가지런히 떠 나온다. 처음에는 둘이 다 백설 같은 옷을 입고 각각 한 손에 꽃가지를 들고 다른 한 손은 형식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길을 펴서 형식의 앞에 내어밀었다. …이윽고 영채의 모양이 변하여지며 그 백설 같은 옷이 스러지고 피묻고 찢어진, 이름도 모를 비단 치마를 입고, 그 치마 찢어진 데로 피묻은 다리가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백설같이 차리고 방글방글 웃는 선형은 형식의 앞에서 손을 내어밀고, ‘형식 씨! 제 손을 잡으세요, 네’ 하고 고개를 잠깐 기울인다. 형식이가 정신이 황홀하여 선형의 손을 잡으려 할 때에 곁에 섰던 영채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섭게 변하며 빠드득하고 입술을 깨물어 형식을 향하고 피를 뿌린다.”⁴⁾

이형식에게 정조를 잃지 않은 선형은 선녀이고 정조를 잃은 영채는

4) 이광수, 앞의 책, 136쪽.

귀신이다. 이렇듯 정조를 중시하는 형식으로서 이미 정조를 잃은 영채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형식과 반대로 번가수는 정조보다 사랑의 마음을 더 중요시한다. 앞의 각주 3에서 보았듯이 이미 유장군이 심봉회를 빼앗아갔는데도 번가수는 심봉회가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배우자로 맞아 같이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또 이형식은 민족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었는데 번가수는 그렇지 않았다. <무정>이 창작되는 1917년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작품에 이형식이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민족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민족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될 때도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 이광수가 자신이 품은 민족해방 사상을 주인공 이형식에게 투사한 결과이다. <제소인연>이 창작된 1930년 중국은 군벌 전쟁의 시대였다. 작가 장한수는 기자의 시각으로 학생인 번가수를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번가수는 아버지를 여의지만 삼촌의 도움으로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번가수는 국가의 장래나 민족의 운명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신에 독일 유학을 갔다온 번가수는 군벌과 항전하는 義勇軍에게 화학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2) 박영채와 심봉회의 비교

<무정>에 박영채와 <제소인연>의 심봉회는 모두 신분이 낮은 기녀나 가녀라서 봉건사회에서 남자들이 마음대로 다루는 하층은 존재였다. 그래서 영채와 봉회는 작품에서 이런 불행한 운명을 벗어나고픈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영채는 기생이 된 후 이형식이 자신을 구출해 주기를 7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이형식을 찾아갔다. 또 심봉회는 번가수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받아 가녀 신세를 벗어났다.

그리고 영채와 봉회는 모두 봉건사상이 몸에 배어 신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영채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소학 열녀전과 시학을 배웠다.

아버지가 영채 자신에게 농담처럼 하신 ‘크면 이형식에게 시집가라’는 말 때문에 영채는 이형식을 7년 동안 기다린 것이다. 이형식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도 모르면서 이형식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계속 담아 두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시집 가겠다는 영채는 봉건사회 가부장적 혼인 풍습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심봉희는 어머니와 삼촌을 따라 다니며 노래를 부름으로써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자매들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 첩으로 팔려갈 신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유장군의 위협으로 노래 부르다가 번가수가 생각이 나서 기절을 했다. 그러나 심봉희는 이것이 자신이 번가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심봉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자신을 남자들의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하는 데서 심봉희 역시 봉건사회의 잘못된 신분제의 희생물임을 보여준다.

영채와 봉희는 모두 봉건사회의 희생물이지만 작품 속에서의 운명은 다르게 전개된다. 영채는 어릴 때 배운 열녀전으로 인해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고, 또 아버지가 정해 주신 남편감 이형식을 위해 정절을 지켜왔다. 나중에 김현수와 배명식 등 사람에게 겁탈당한 후에 영채는 더러운 몸을 씻으려고 평양 대동강에 자결하러 간다. 이런 영채는 근대 과도기에 역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찬양 받을 만한 여성이라서 작가 이광수는 영채에게 죽는 운명을 부여하지 않고 결국 신여성 병옥에게 구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다. 이와 반대 심봉희는 금전에 눈이 어두운 어머니와 삼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도 부귀영화가 가득한 생활을 꿈꾸어 왔다. 어머니와 삼촌은 번가수가 부자집의 공자인 것을 알고 심봉희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얻었다. 그러나 번가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유장군을 만나게 되니까 심봉희를 다시 유장군에게 팔기로 하고 번가수를 포기해 버린다. 비록 유장군이 권력을 이용해 심봉희를 위협했지만 협객 관수봉 등 사람들은 구제하러 갈 때 심봉희 모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가 장한수는 심봉희

의 혼인을 부도덕적인 거래라고 매도하고 결국 심봉회를 미쳐 죽어버리는 운명을 부여했다. 장한수는 후에 <제소인연>의 창작소감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심봉회로 하여금 번가수와 다시 혼인을 맺게 한다면 소설을 쓴 나로서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⁵⁾

(3) 김선형과 하려나의 비교

다음에 <무정>의 김선형과 <제소인연>의 하려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선형과 하려나는 작품에서 모두 부자집 딸이고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졌다. 비록 선형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구문명을 받아들였고 성경도 읽어보았고 영어도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연애에 대해 확실히 잘 모르는 여자이다. 원래 선형은 이형식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다.

“아주 못생긴 사람은 아니나 자기의 이상에 그리던 남자와는 어림이 없이 틀린다. 형식의 태도에는 숨길 수 없이 빈궁한 빛이 보이고 마음을 쭉 펴지 못하는 듯한 침울한 기상이 드러난다. 게다가 그의 이력과 경성 학교 교사라는 그의 지위는 선형의 마음에는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형식 같은 사람으로 자기의 배필을 삼으려 하는 부친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게도 생각이 되었다.”⁶⁾

하지만 선형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형식과 약혼을 하게 된다. 약혼식 후에 어느 날 이형식이 선형에게 “선형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선형은 그 질문의 요지를 알지 못한다.

“선형의 생각에는 그건 말을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랴 한다.” 그리고 이

5) 可是要把她写的和樊家树坠欢重拾，我做书的，又未免“教人以偷”了。张恨水，「作完《啼笑因缘》后的说话」『张恨水精选集』北京燕山出版社，2009. p.213

6) 이광수, 앞의 책, 281-282쪽.

형식이 선형에게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라고 물을 때 선형은 “마찬가지 아닙니까?”⁷⁾

선형은 자유연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이형식의 질문에 어이없는 대답을 한다. 선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작가 이광수는 서구문명을 배울 수 있어도 사람들은 자유연애관에 대해 마음속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을 나타냈다.

선형과 달리 하려나는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옷차림뿐만 아니라 사상도 개방적인 여성이다. 북경호텔에서 번가수와 하려나가 처음 만날 때 하려나의 옷차림은 “이때, 한 17살쯤 된 여자는 두팔도 보이고 눈처럼 하얀 앞뒤가슴도 많이 파인 초록색 명주로 만든 서양 무용옷을 입고 있다.”⁸⁾고 묘사되어 있다. 번가수의 형수 도부인에게 소개를 받고 하려나는 사양하지 않고 직접 번가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짙은 향기를 품는 하려나에 대해 번가수는 “이 여잔 아름답긴 하나 방탕해도 너무 방탕하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려나는 번가수에게 첫눈에 반해서 후에 번가수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몇 번이고 번가수를 만나러 갔다. 서구의 자유로운 연애 풍습을 받아들인 하려나는 남녀간의 사랑을 대담하게 주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다. 후에 번가수의 취향에 맞도록 서양적인 옷차림을 중국 전통적인 옷차림으로 바꿔 동방적인 우아한 여성으로 변했다. 결국 하려나는 번가수와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다. 번가수와 하려나의 결혼을 통해서 작가 장한수는 자유연애관을 찬동하지만 여성은 사랑에 너무 개방적인 걸 부정하고 보수적인 동양적 여성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이광수의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에 등장하는 주요

7) 이광수, 앞의 책, 288-289쪽.

8)这个时候,有一个十七八岁的女子,穿了葱绿绸的西洋舞衣,两只胳膊和雪白的前胸后背,都露了许多在外面。张恨水, 앞의 책, p.18.

인물들에 대한 비교 고찰을 분석을 통해 근대사회로의 과도기에 한중 작가의 근대적 인생관과 연애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사상은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단시간에 완전히 서구사상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것은 이광수와 장한수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형식은 보은 사상의 구속으로 영채를 포기하지 못하고 선형을 사랑해서 영채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심리는 바로 친구사상의 교체기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번가수가 새로운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방적인 여성 하려나를 거부하고 소박하고 우아한 동양적으로 변모한 하려나를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유연애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인 남녀관을 아직 버리지 못한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과도기적 근대관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4. 서사법 비교

<무정>과 <제소인연>에서 이광수와 장한수는 자유연애에 관한 주제를 서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사법을 이용했다. 그 중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전지적 시점을 취급한다. 이광수와 장한수는 고전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에서 모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택했다. <무정>의 서술자는 사건의 발전의 과정을 조종하며 인물의 언어와 행위 및 심리활동도 통찰한다. <제소인연>도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독자에게 생동적인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작중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했다.

둘째, 예시 수법을 이용한다. <무정>의 서두에서 신우선과 이형식이 만나 대화를 한 후에 이형식의 심리를 묘사했다. “미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지 아니하거니와, 이이나즈께(약혼), 앵게지먼트라는 말이 이상하게 기쁘게 들린다.”⁹⁾ 이 문장을 통해서 이형식은 나중에 김선형을 좋아하

9) 이광수, 앞의 책, 14쪽.

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나중에 김선형과 약혼할 것이라는 것까지 암시했다. <제소인연>의 제10회에서 유장군이 심봉희를 모시러 가는 차를 파견하더니, “봉희는 차에 타자 자기도 모르게 앞뒤를 계속 구경하며 … 내가 호위병 지키는 차를 타는 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집 여자인 줄 알겠다고 생각했다”¹⁰⁾ 이 장면에서 심봉희가 나중에 번가수를 배신할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제8회에서 심봉희가 번가수에게 악기를 연주하다가 금줄이 끊겼다는 일로 두 사람의 인연이 파멸에 이를 것임을 예시했다.

셋째, 삽입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많은 논의가 있는 바와 같이 <무정>의 대단원은 삼랑진의 수재민을 위한 활동을 통해 형식을 중심으로 갈등의 한 가운데 얽혀 있던 네 인물이 ‘민족애’를 깨닫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제소인연>에서는 이야기가 중단될 고비에 항상 관수봉의 활동을 삽입하여 이야기를 이어지게 시켰다. 심봉희가 유장군에게 팔려가서 번가수와 사랑이 중단되기 시작할 때 관수봉이 봉희를 구하러 유장군의 댁을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관수봉의 눈으로 심봉희의 배신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 번가수가 강도에게 납치당할 때 관수봉이 또 나타나 번가수를 구했다.

넷째, 도치수법을 이용한다. <무정>의 서두는 이형식이 가정교사를 하는 첫날 처음 만나는 선형에게 어떻게 인사할지 고민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형식을 찾으러 온 영채와 만나서 영채의 회상을 통해서 지난 칠 년 동안 갈라진 영채의 기구한 경력을 서술하게 했다. 영채가 겁탈당하여 자결하러 평양으로 간 후에 작가는 먼저 이형식이 영채를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김선형과 약혼의 과정을 서술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서술 시간의 앞으로 끌어당겨 영채가 자살하러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서 신여성 병욱을 만나니 병욱에게 구제받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제소인

10) 凤喜坐在车上,不由得前后左右, 看个不停, … 心想, 见我坐了带着护兵的汽车, 那还不会猜我是阔人家的眷属呢? 张恨水, 앞의 책, p.93.

11)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1, 31쪽.

연>의 제19회에서 관수고와 유장군이 결혼의 계획을 서술하다가 관수봉과 번가수를 만나 작별하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후에 신문에 실린 보도를 통해서 유장군이 결혼하는 당일 밤에 관수고에게 죽었다는 사건을 밝혔다. 이렇게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시간 순서를 무너져서 독자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인식하게 한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서사법 이외에 두 작품에 특색이 있는 서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무정>에서 인물들의 심리활동을 꼼꼼히 묘사했다. 영채는 이형식을 칠 년만에 만나 자기의 불행을 알려줬다. 영채를 겁탈할 욕심을 가진 악한에게 붙들려 간다는 얘기를 들은 후, 이형식은 “영채에게 대하여 갑자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 저 계집이 이때까지 누구지 알 수 없는 수 없는 남자에게 몸을 허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저 입으로 별의별 더러운 남의 입술을 빨고, 별의별 더러운 남의 마음을 호리는 말을 하던 입이 아닌가.”¹²⁾ 라고 생각하면서 영채에게 미운 정을 갖는다. 그러다가 개의 도움으로 악한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형식은 “영채의 말을 듣고 얼마큼 안심이 되었다. 영채의 얼굴을 다시금 보매, 새삼스럽게 정다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생각이 안다. 지금까지 영채의 절행을 의심하던 것이 죄송스럽다 하였다.”¹³⁾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이형식이라는 인물이 여성의 정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광수는 작품 <무정>에서 전지적 시점을 이용하여 서술자는 작중인물의 대화와 심리활동을 주석하는 동시에 주석을 넘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설하기도 한다. 선형은 형식과 약혼 직전에 순애와 상의한다.

12) 이광수, 앞의 책, 38쪽.

13) 이광수, 앞의 책, 41쪽.

“그러면 네 생각에 이 선생이 사람이 어떠냐……. 좋을까./ 좋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삼 일 동안 한 시간씩 글이나 배워 보고야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형님 생각에는 어때요?/ 나도 모르겠으니 말이다……. 예그, 어찌나……. 어찌면 좋아.” 이어서 “이러한 회화가 있었다. 이 회화를 보아도 알 것같이 선형은 형식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러나 십칠팔 세 되는 처녀의 마음이라, 이주 악인이거나, 천한 사람이거나, 얼굴이 아주 못생긴 사람만 아니면 아무러한 남자라도 미운 생각은 없는 것이다.”¹⁴⁾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작중 인물의 심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작중 인물이 이런 고민을 가진 이유까지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¹⁵⁾ 작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 계몽하기 위해 이런 서술 방식을 사용했는데 독자들이 상상하여 채워야 할 내용을 모두 말해 버림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감소했다.

<제소인연>에서도 심리묘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심리묘사 대신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예컨대 장한수는 심봉희가 유장군의 부인이 된 후 번가수와 만날 때 사천 원 짜리 수표를 건네주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했다.

“번가수는 생각 없이 받아서 잠시 후 뭘 깨우듯이 수표를 보니 딱 사천 원이라고 써놓았다. … 가수는 양손을 벌여 하늘로 뻗었다. 크게 웃으면서 ‘좋아,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돈 본 적이 없었다, 사천 원 짜리 수표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보니 어찌 안 웃을 수가 있나?’…’라고 하며 수표를 접고 찢어버렸다. 이 사천 원 짜리 수표가 바람결에 이십여 마리의 흰 나비가 되어 햇빛 속에 날아간다. 가수는 머리를 들어서 ‘하하, 멋있네! 돈아, 돈아, 너도 사람에게 깔보일 때가 있구나!’¹⁶⁾

14) 이광수, 앞의 책, 241쪽.

15) 정연희, 「근대 소설의 형성과 『무정』의 과도기적 성격」 『한국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집 2003, 318쪽.

이런 인물의 말과 행동의 묘사를 통해 번가수의 배신당한 분노와 비통을 독자들은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위와 언어 묘사를 한 후에 작가는 보통 설명이나 해설 같은 글을 붙이지 않고 독자에게 충분한 상상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소인연>에서 전지적 시점만 사용하지 않고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심봉희가 유장군에게서 선물과 돈을 받은 후 작가는 일인칭 시점으로 심봉희의 번가수에게 갈까 유장군에게 갈까 하는 모순된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수봉의 시점으로 심봉희가 유장군의 유혹에 넘어가 번가수를 배신하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

Ⅲ. 전통의 계승과 갱신의 제 양상

20세기 초 중한 양국의 문학은 모두 고전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변화하는 도중에 있었다. 그 시기에 창작된 작품에는 중한 양국의 고전문학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고전문학에 대한 개혁도 시도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주제와 문체의 차원에서 <무정>과 <제소인연>에 나타난 양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계승과 개혁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떤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전문학의 주제

-
- 16) 她将支票递过来，也就不知所以的将支票接着，一句话说不出来。停了停，醒悟过来了，将支票一看，填的是四千元正，…。家树两手张开，向天空一伸。大笑道：“好，我发了财了！我没见过钱，我没有见过四千块钱一张的支票，今天算我开了眼了，我怎么不笑？…”说着，…。两手比齐，拿了支票，嗤的一声，撕成两半。…这四千元就变成一二十只小白蝴蝶，在日光里飞舞。家树昂着头笑道：“哈哈，这很好看啊！钱呀，钱呀，有时候你也会让人看不起吧！” 장한수, 앞의 책, p.152.

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정>의 전반부에 나타난 영채의 이야기는 한국 고전문학에 기녀담의 주제를 계승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한국 고전소설 기녀담의 서사 유형과 <무정>의 서사 유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녀담의 공통 서사 유형>

- (1) 여주인공은 중인층 이상의 출생이다.
- (2) 집안이 몰락하거나 부모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
- (3) 남주인공을 만나 가약을 약속한다.
- (4) 이별한다.
- (5) 방해자에 의해 겹간 당하는 위기에서 투신을 시도한다
- (6) 조력자에 의해 구출되고 안전하게 지낸다.
- (7) 남주인공의 성공으로 혼인을 맺는다.

<무정의 서사유형>

- (1) 영채는 중인층 이상의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 (2) 이형식을 만나 가약을 맺을 약속을 한다.
- (3) 이형식과 이별한다.
- (4) 아버지가 위기에 처해서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
- (5) 동학 교도에 의해 겹간 당할 위기에 처한다.
- (6) 개의 도움으로 구출된다.
- (7) 이형식을 다시 만나지만 구출되지 못한다.
- (8) 배명식과 김현수에 의해 겹간 당한다.
- (9) 이형식이 영채를 구출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 (10) 영채는 투신 자결을 결심하고 평양으로 떠난다.
- (11) 영채는 병욱에 의해 구출되고 안전하게 지낸다.
- (12) 영채는 스스로 성공하여 제2의 삶을 산다.¹⁷⁾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채는 여주인공이고 이형식은 남주인공이라면 <무정>의 앞부분은 기녀담의 서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정>의 앞부분의 주제는 고전소설의 기녀담 주제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는 기녀담을 차용하면서도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여 <무정>을 단순히 기녀담에 멈추지 않고 뒷부분의 주제를 확대했다.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 과거시험 취소되어 이형식은 과거 급제로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학교 교직자로서 간신히 살아가는 이형식으로서 영채를 구출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영채는 겁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전통사상을 가진 구여성으로서 정절을 잃은 영채는 자결하러 가는 도중에 신여성 병욱을 만나 구출되고 스스로 성공하여 새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영채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무정>의 뒷부분에 민족계몽 주제를 담아 고전소설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독창적으로 갱신하고 확대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중국의 고전소설 중에는 선비(士子)와 청루기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李娃传』, 『霍小玉传』, 『杜十娘怒沉百宝箱』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 청루기녀는 항상 중국인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기녀는 미모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나름의 도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기녀들은 권세가 있는 자나 엄청난 부자를 사랑하기보다는 굳이 선비(士子)를 사랑한다. 선비와 청루기녀의 연애라는 주제는 근대문학에까지 계승되어 왔다. 장한수의 등단 작품 《春明外史》도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애 이야기는 항상 비극적 결말을 보이는데 비극을 유발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배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춘명외사》에서는 남주인공이 가난하여 기녀인 여주인공을 구출하지

17) 문한별,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과 『무정』에 수용된 기녀담 서사 유형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1집, 317쪽 참조.

못해서 여주인공이 죽고 말았다. <제소인연>의 앞부분은 고전소설의 이런 주제를 계승하여 번가수와 심봉희의 연애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어느 가녀가 자원적으로 한 군벌과 결혼했는데 가녀의 아버지는 군벌에게서 받은 혼인 협의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군벌이 자신의 딸을 훔쳐갔다고 고소하는 신문기사와 어느 군벌이 관료의 두 딸을 빼어갔다는 사실을 결합하여 작품의 주제를 수정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고전소설의 선비와 청루기녀의 연애라는 주제를 확대하여 당대 사회현실을 풍자하는 사회연애 소설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문체의 측면에서 보면 <무정>은 한국 근대소설 중 최초로 언문일치를 실현한 소설로 평가된다. 즉, <무정>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순수한 한글로 창작한 소설이다. 전통적인 한문현토체를 벗어나 당시 일본에서 수입된 국한문혼용체로 소설을 창작하여 소설의 독자의 수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이광수가 가지고 있었던 반봉건사상과 계몽사상이 신속히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소인연>은 중국 章回體 소설의 문체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회마다 回目을 지어 준 것은 장회체를 계승한 것이다. 회목은 중국 고전소설에서 회별 내용을 구별하기 위하여 두 마디의 시구를 지어서 회별의 제목으로 붙인다. 그리고 장회체는 매 회의 이야기 끝에 꼭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싶으면 다음 회를 들어보세요.”(欲知后事如何, 且听下回分解。)라는 말이 달려 있다. 마치 評書¹⁸⁾를 하는 것처럼 그 말을 붙이는 것이다. 장한수는 이런 말로 끝맺으면 소설이 딱딱한 느낌이 있어 보여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회마다의 결말에 이야기의 장면에 따라 다른 말을 썼다. 예컨대 13회에 관수봉과 제자들이 심봉희를 구하러 몰래 유장군의 댁에 갈 때 갑자기 돌담에서 떨어졌으니 제자가 놀랐다. 이어서 “관수봉은 위험이 있는 지

18) 評書 : 중국 곡예 중의 하나인데 장편소설만 연설한다. 연설자는 한 명이고 나무 조각 하나, 부채, 손수건 등을 도구로 한다.

는 다음 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要知壽峰有无危險, 下回交代。)라는 말로 끝맺었다.

그리고 《官场现形记》, 《二十年目睹之怪现状》 등 중국의 고전소설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과 인물, 사건과 사건에 큰 연관이 없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서 작품에 일정한 줄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장한수는 이런 고전 소설의 서사 방식을 수정하여 <제소인연>에서는 번가수 한 사람의 연애 이야기에만 한정하여 서술함으로써 현대소설이 요구하는 구성의 통일성을 꾀하였다.

또 중국 고전소설에서 연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은 예외 없이 작품에 등장한 여주인공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의 본처가 되든 후처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시집가는 것으로 결말지어져 있다. 그러나 장한수는 근대적인 결혼관과 근대소설의 서사 방식을 수용한 결과 이런 전통적인 결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소인연>을 보면 심봉희는 병이 걸려 죽고 관수고는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고 번가수는 하려나와 결혼하게 된다. 이런 비극과 희극을 뒤섞인 결말은 전통소설의 틀을 사용하면서도 그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소설의 서사 방식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무정>과 장한수의 <제소인연>을 주제, 인물, 서사 방법 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비교 연구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근대 과도기에 작가는 자기 나라의 문학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서구문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통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작중 인물의 비교를 통해

중한 양국의 작가는 모두 근대 과도기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구사상이든 전통사상이든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작가들은 자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통과 근대를 적절히 조화시킬 때 위대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에 등장한 주요인물만 비교 고찰하고 부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 바 이것은 본고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시대적인 상황 등에 대한 비교 고찰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야 할 문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집탈」, 『한국 현대문학과 근대성의 탐구』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서울: 새미출판 2000, 117-137쪽.
- 김학면, 「이광수 초기 문학담론과 『무정』의 ‘근대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169-214쪽.
- 문한별,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과 『무정』에 수용된 기녀담 서사 유형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1집, 우리어문학회 2003, 307-329쪽.
-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2, 6-96쪽.
- 이광수, 『무정』, 서울: 우신사 1979, 11-395쪽.
- 이상우, 「『무정』의 담론분석」, 『한국언어문학』 제 36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1-22쪽.
- 정연희, 「근대 소설의 형성과 『무정』의 과도기적 성격」, 『한국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311-330쪽.
- 조은파, 「이광수와 염상섭의 초기 장편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1-124쪽.
-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54쪽.
- 최혜실,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 사랑, 성」, 『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55-183쪽.
- 刘少文, 「论报人生活对张恨水小说创作的影响」,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2005, 1-231쪽.
- 马琳, 「男性叙事与张恨水社会言情小说的一种模式」, 『嘉兴学院学报』第17卷,第4期,浙江嘉兴学院, 2005.7, 80-83쪽.
- 余小杰, 「中国现代社会言情小说研究」, 山东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02, 1-74쪽.

温奉桥, 「现代性视野中的张恨水小说」, 山东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03, 1-106쪽.

温奉桥, 李萌羽, 「论张恨水小说的若干特点」,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第3期, 中国现代文学馆, 2005, 266-276쪽.

张恨水, 「啼笑因缘」 『张恨水精选集』,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9, 1-326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u Jeong> by
Lee Kwang-soo And <Ti Xiao Yin Yuan> by
Zhang Hen-shui

Zhang, Chun-Mei

As the twentieth century began, both Korea and China featured with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started towards modern societies thanks to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To expound the general viewpoints of the two countries on marriage at the transitional time, the paper is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wo works--Mu Jeong by Korean writer Lee Kwang-soo and Ti xiao yin yuan by Chinese writer Zhang Hen-shui. The two works both tell stories about people's freedom to choose their spouses--a new concept unfamiliar to peoples at that time in both countries. The paper is designed to seek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novels from the aspects of themes, characterizations, and narrative methods and is an attempt to make a study of the propositions of both Lee Kwang-soo and Zhang Hen-shui on the freedom to choose one's spouse. Besides, the paper is also an effort to study what the two writers inherit from their respective traditional literatures and what is invented by the two.

Key Words : Lee Kwang-soo, Zhang Hen-shui, <Mu Jeong>, <Ti Xiao Yin Yuan>, compare, freedom to choose one's

spouse, narrative technique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